

한국 불교문화와 역사 배우요

“오늘 경험이 직장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창한 5월 주말 봉은사 마루대불 앞에서 만난 응오 티흐영 씨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국제포교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설명을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된지 6개월 차인 티흐영 씨에게는 국제포교사회가 주최한 ‘한국문화체험 City Tour’ 행사가 한국을 이해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베트남과 전혀 다른 것, 비슷한 것 등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은 흥미진진한 소재였다. 티흐영 씨는 “한국 기업에 근무하면서도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와 역사, 독립정신 등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5월 22일 봉은사 한국문화체험 시티 투어 입체색 모습

국제포교사회, 제8회 한국문화체험 City Tour

태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80여명 참가

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 및 음식 체험, 한강 유람선 탑승,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국립민속박물관 관람 순으로 구성된 한국 역사를 집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포교사회 배광식 회장은 행사 일정에 대해 “한국의 전통과 생활문화 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아픈 과거의 역사와 독

립정신을 통해 진정한 한국을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유학생들과 20대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지난해 결혼 이주민들이 많았던 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인 응웬 티흐영 씨(국민대 대학

원)은 “작년에 참석하지 못해 올해 있을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학 온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봉은사에 처음 온다는 그녀는 “절에 오니 자연 속에 있는 것같이 마음이 편안하다”며 활짝 웃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로타나 씨는 포교사의 설명을 캄보디아어로 통역해 함께 온 동료와 친구들에게 다시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일주문의 의미, 불교의 역사 등을 메모하는 모습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그는 “일하느라고 바빠 가까이 접이 있는지 몰랐다.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와 역사를 배우 기쁘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포교국장 무성 스님은 “외국에 와서 일과 공부를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행사를 계기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 도반으로서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게 돼 참 기쁘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털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조현덕 국장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알리고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평등과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성철 스님 가르침, 이제 지키자”

백련불교문화재단, 제2차 학술대회 성료

성철 스님의 삶은 가장 굴곡졌던 20세기 한국역사와 한국불교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불교역사 속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5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 성철’을 주제로 제2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진각대 김경집 교수가 주제 발표 ‘근대한국불교의 선풍(禪風)과 퇴옹 성철의 수행’을, 신라대 조명태 교수가 ‘해인총림 설치와 운영의 불교사적 의미’를, 동방대학원대학교 차차석 교수가 ‘대답과 갈등의 근대사와 종교 법문의 의

미’를 발표했다. 진각대 김경집 교수는 현대 불교의 문제를 “일제 강점기에 변질된 기복신앙의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참선을 강조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집 교수는 “스님은 범당 안에서 비(非)불교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신앙적 대상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진영 기자

금강대, 제16회 콜로키움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 주제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5월 25일 금강대 본관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제로 제16회 인문한국(HK)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행사는 금강대 불문연 하유진 HK연구교수가 ‘도생의 돈오설과 그 주변’을, 금강대 불문연 박보람 HK연구교수가

‘불교(佛敎)란 무엇인가?’를 주제 발표했다.

박보람 연구교수는 화엄교학 중 지엄(智嚴), 의상(義湘), 법장(法藏)의 교체설(敎體說)을 중심으로 불교를 새롭게 조명했다. 경전 해석 틀의 중요 요소로 ‘불교’를 설명했다.

천진영 기자

교학체계 법성종 기준으로 정비해야

보조사상연구, ‘화엄의 성불론과 교판론’ 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5월 21일 연세대에서 ‘화엄의 성불론과 교판론’을 주제로 제 95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가 ‘규봉종밀의 법성종 현상과 그 철학적 의의’를, 금강대 불교·복지학부 권단준 교수가 ‘화엄의 성불론 재고’를 주제 발표 했다.

신규탁 교수는 법성종 현상을 규봉종밀 스님의 학문 체계화 방법인 요간적(料簡的) 방법과 회통적(會通的)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또 신 교수는 법성종 현상의 철학적 의의를 형이상학적, 지식론적, 윤리학적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법성종은 규봉종밀 스님의 3종 교법 분리인 법성종(法相宗), 파상종(破相宗), 법성종의 하나이다.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는 “규봉종밀 스님이 현양한 법성종(法性宗)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 교학체계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진영 기자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7 - 전도몽상 내려놓기①

마음이 왜곡되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

어린 시절 필자는 모친을 따라 밤중에 절에 간 적이 있다. 절이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소 험했다. 겨우 겨우 길을 찾아가던 중 우리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무엇인가 나타났다. 모친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모친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염불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그것은 우리를 쫓아오지는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다가 지난밤에 귀신같은 것이 나타난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거기서 필자는 쌓여진 기와를 덮어 놓은 천 무더기를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해가 저서 어두웠기 때문에 쌓여진 기와를 덮어 두었던 천이 바람에 팔려지면서 귀신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을 잘못 아는 것을 마음이 왜곡(vipassana) 또는 전도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전도몽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흔들리는 물위에 사물이 비치는 것과 같아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이다.

이런 왜곡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난다. 마음이 왜곡되면 진실은 진실로 알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엉키게 된다. 이런 엉킴 또는 왜곡이 심해지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설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해도 이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과 왜곡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 왜곡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위의 예에서 기와를 쌓아둔 것을 귀신으로 잘못 아는 것처럼 마음이 왜곡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것을 어리석음(moha, 癡)이라고 한다.

대상의 본질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익이 되는 법들은 이익이 된다고 보고, 이익이 되지 않는 법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붓다께서 세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신 사성제와 연기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지혜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 진리를 감추고 대상을 왜곡시켜 지혜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 마음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한다. 왜곡된 것이 원하는 대상이면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면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난다.

탐욕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므로 대상의 좋은 면만 보게 된다. 성냄은 대상을 거부하는 마음이므로 대상의 나쁜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여기서 탐욕은 행복과 평온한 느낌이 함께 하고 성냄은 불만족한 느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탐욕과 성냄은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통 탐욕이 만족되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일어난 탐욕과 성냄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착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이런 탐욕과 성냄은 마음을 다시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더욱 왜곡되어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왜곡, 즉 전도몽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일목 스님(예파와나 방배선원장)

스님!

10년 후에도 우리 절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찰 경제의 안정은 도량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바탕입니다. 지금, 전국의 스님들께서 법륜대와 사찰경제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 법륜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찰 ◆

법정사	부산경북	보경사	경기	약사사	경기	고선사	정음
기룡사	경원	대승암	전주	법성사	부산	원당사	경기
조주선관	강원	광명사	경남	수곡암	하동	미륵사	경남
운사	경북	창명사	경기	도원사	경남	정각사	부산
극락사	경기	무심사	대구	홍건불사	경기	보은정사	경북
성암사	경기	무공사	울산	지장수사	부산	용화사	경주
대우사	부산	동경사	경남	문수사	충북	보광암	부산
대관음사	대구	용관사	충남	용화사	경북	금강암	부산
길상사	부산	백천지암	경북	해송사	부산	성주암	부산
불성사	서울	용화사	부산	울림사	경기	무아사	청주
금선사	서울	백연사	부산	건봉사	경기	문수암	부산
미암사	충남	연송암	충북	한보사	경기	보광선원	부산
배과사	경북	극락사	서울	여래사	경북	관음사	울산
화상사	경기	보광사	서울	덕천사	남원	지선사	부산
대운사	경기	덕천사	충남	삼학사	경북	미륵사	광주
대운사	경기	구룡암	서울	약지암	서울	대현사	광주
안심정사	충남	약지암	부산	정암사	부산	미륵사	광주
정암사	전남	상원사	서울	상원사	서울	관산불원	서울
						대법사	부산
						황룡사	김해
						복천사	부산
						태광암	부산
						묘법사	마산
						대선사	경남
						보문사	경남
						비로사	경북
						소원정사	경북
						약수암	부산
						약명사	부산
						전영포당	경남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게 : 25kg

전화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겠습니다.

055)941-1083, H.P 010-4595-0017 덕유산 청다향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